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 기독교윤리학/조직신학)<sup>1)</sup>

### 국문초록

어떤 신학과 교파가 이단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교리들 특히,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방식에 관한 심각한 왜곡이 있어야 한다. 퀴어 신학은 현대인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사조에 맞추어 정통 기독교의 핵심교리들을 자의적으로 변경 또는 폐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론을 채용한다. 이 방법론에 따라 퀴어 신학은 성의 유동성을 주장하는 젠더이데올로기와 이성애적 규범을 철폐한 성해방이념의 관점에서 정통 기독교의 핵심교리들을 외설적이고 독신적(瀟神的)으로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퀴어 신학은 LGBT들의 젠더적이고 친동성애적인 경험에 비추서 범신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을 재해석한다.

퀴어 신학은 하나님을 남성과 여성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성전환적인 자용동체로 묘사하며, 성전환자로서 파트너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성애를 품고 성관계를 행하는 외설적인 불륜행위자로 묘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상호간에 집단 난교를 즐기고, 인간들과 비밀의 애인을 숨겨 놓고 밀회를 즐기며, 인간들과도 이성과 동성을 가리지 않고, 또한 유부녀인가 유부남인가도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근친상간을 즐기는 색광으로 묘사한다. 퀴어 신학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에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이단으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참람한 신성모독까지도 자행하는 사탄의 신학이다. 퀴어 신학은 다양한 신학체계들 가운데 하나로서 대화와 신학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버려야 할 신학적 쓰레기와도 같은 신학이다.

핵심 단어들: 퀴어 신학, 젠더이데올로기, 이단, 삼위일체 하나님, 난교

1)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조직신학교수(1998-2021)를 역임했고, 현재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원장,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월드뷰 대표 주필 등으로 섬기고 있다.

## 들어가는 말

### I. 퀴어 신학의 정의, 방법론, 그리고 철학적 배경

1. 퀴어 신학의 정의
2. 퀴어 신학의 신학적 방법론
3. 퀴어 신학의 종교적, 철학적 배경

### II. 퀴어 신학의 삼위일체론

1. 성부 하나님
  - a. 계시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커밍 아웃
  - b. “톱”(top)의 위치에서 성교에 참여하시는 “범신범성적 성애”의 하나님
  - c. 삼위일체의 관계는 난교(亂交)와 다자성애
  - d. 창조: 하나님의 범신범성적 성애의 쏟아부음
2. 성자 하나님
  - a. 죄: 범신범성적 성애의 거부
  - b. 예수 그리스도: 자웅동체적 남녀양성자
  - c. 구속: 범신범성적 성애를 통한 희생양삼기를 끝내기
3. 성령 하나님
  - a. 성령: 범신범성적 성애로 인도하는 보혜사
  - b. 교회: 범신범성적 성애의 외적 공동체
    - 통일성.
    - 거룩성.
    - 보편성.
    - 사도성.
  - c. 성례: 범신범성적 성애의 미리 맛보기
    - 세례.
    - 성찬.
  - d. 종말론적인 지위집

### III. 퀴어 신학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비판

1. 퀴어 신학의 정의의 문제
2. 범신론의 문제
3. 신성모독적인 범신론(1): 하나님을 반창조질서적이고 반생물학적인 성전환자와 동일시함
4. 신성모독적인 범신론(2): 하나님을 성적인 불륜행위자와 동일시함
5. 신성모독적인 범신론(2): 중요한 교리적 사건들을 커밍 아웃으로 해석함

## 나가는 말

## 들어가는 말

퀴어 신학(Queer Theology)은 이단인가? 어떤 신학이나 교파가 윤리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든지, 사회에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심지어 성경본문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드러냈다는 사실은 건덕(建德)상으로도 신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근거로는 부족하다. 이단 규정을 위해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들과 삶의 원리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방식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sup>2)</sup> 예를 들어서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양자론을 주장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킨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하여 왜곡된 해석을 제시한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말은 퀴어 신학이 이해하는 기독교교리와 삶의 원리 특히,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방식에 관한 이해 안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왜곡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필자는 “사실이다”라고 분명히 답하고자 한다. 실제로는 사실 그 이상이다. 역사적으로 등장한 이단들의 특징은 초월적인 기독교 교리들을 합리적으로 무리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하다가 잘못된 길에 접어 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퀴어 신학은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퀴어 신학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성질서를 악의적으로 거스르는 음란한 성적 관행인 동성 간의 성교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동성애자로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성행위를 자행하는 주체로 대담하게 제시한다. 역사상 등장한 어떤 이단도 이처럼 하나님 자체를 성적으로 음란한 본성을 지니고 또한 음란한 행동을 일삼는 외설적인 하나님으로 대담하게 묘사한 경우는 없었다. 퀴어 신학의 신관은 역사상 등장한 이단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먼저 퀴어 신학의 정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어서 퀴어 신학의 방법론과 철학적 배경을 개관한다. 본론에서는 퀴어 신학의 신론에 논의를 집중한다. 필자는 퀴어 신학의 삼위일체론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퀴어 신학의 주장을 소개하고 비판한다. 이 비판을 통하여 필자는 퀴어 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신론에 심각한 손상을 가함으로써 이단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한 도덕법의 명령을 스스로 범하고 성적인 불륜을 자행하는 신으로 묘사함으로써 참람한 신성모독성까지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

2) 브라운(Harold O.J. Brown)은 이단의 개념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직접 다루면서 전통적 기독교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분리시킨 교리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정의한다 (Brown 2002, 116).

## I. 퀴어 신학의 정의, 방법론 그리고 철학적 배경

### 1. 퀴어 신학의 정의<sup>3)</sup>

퀴어(queer)는 문자 그대로 “낯설고 이상한”이라는 뜻을 지닌다 (Loughlin 2007, 7). 퀴어 신학에 따르면 정통 기독교는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낯설고 이상한” 성격을 가진 신학적 주제들을 신학의 중심주제들로 채용했다. 예를 들어서 동성녀 탄생은 평범한 생물학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낯설고 이상한 현상일 수밖에 없지만 신학의 중심주제가 되었다. 삼위일체가 한 분 하나님이었으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대립적인 본성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나,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효력이 있다는 말이나,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해체되어 버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모두 합리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낯설고 이상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모두 신학의 중심주제들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정통신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낯설고 이상한 것들이 신학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Loughlin 2007, 9).

그런데 정통 기독교는 자신들의 관점과는 다른, 자신들에게 낯설고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관점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진 자들을 정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괴한 것이고, 병든 것이며, 비정상적인 것” (Eribon 2004, 15)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학의 중심부로부터 신학의 변두리로 쫓아내 버리고 억압했는데, 이와 같은 정통 기독교의 태도는 모순이라고 퀴어 신학은 말한다.

여기서 퀴어 신학이 말하는 낯설고 이상한 것은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유동적인 성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뜻한다. 퀴어 신학에 따르면 정통 기독교는 동성애를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인식하고 모독하고 억압해 왔지만, 실상은 기독교 신학 자체가 낯설고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낯설고 이상한 동성애는 기독교신학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요, 따라서 동성애는 신학의 중심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퀴어 신학은 정통신학의 중심 주제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원래 신학의 중심부가 지니고 있는 낯설고 이상한 것들을 찾아내어 정통신학의 중심부를 채움으로써 낯설고 이상한 것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신학적이고 이념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들의 시도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신학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sup>4)</sup>

3) 퀴어 신학의 정의는 “퀴어신학의 이단성”(이상원 2020, 118-20)에 게재된 내용이다.

4) 퀴어 신학에 대한 L.M. 톤스타드의 설명은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퀴어 신학은 기독교가 사람들이 동성관계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젠더 정체성이 출생 시에 병원이 부여한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퀴어 신학자는 기독교가 평생 지속되고,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성애적인 결혼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정죄한다는

## 2. 퀴어 신학의 신학적 방법론

퀴어 신학은 현대 신학의 한 분파로서 현대 신학이 채용한 방법론을 공유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 신학은 현 시대에 등장한 모든 신학 체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슐라이에르마허(Friedrich D.E. Schleiermacher)가 채택한 신학적 방법론을 따르는, 슐라이에르마허 이후의 특정한 신학적 전통을 뜻한다 (목창균 1995, 15-31; 박형룡 1988, 21-156). 슐라이에르마허가 채택한 신학적 방법론은 무엇인가? 슐라이에르마허는 칸트의 비판철학의 영향을 받아 성경의 초월적인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새로운 청중을 잃지 않기 위하여 청중에게 아부한다. 그 방법은 성경에 있는 초월적인 내용들과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기독교교리들을 청중들의 비위와 기호에 맞추어서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폐기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경의 진리들과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의 내용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기독교의 정체성에 큰 손상이 찾아 왔다. 이 방법론은 슐라이에르마허의 충실한 제자들인 구자유주의 신학자들, 구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고 나선 신정통주의 신학자들, 정치신학을 표방하고 나선 급진적인 신학자들, 그리고 최근의 과정신학자들과 물리신학자들에게까지 일관성 있게 관통한다. 퀴어 신학도 이 전통 안에 속해 있다.

퀴어 신학은 현대인들의 새로운 사조들 가운데 특히 성윤리에 있어서의 새로운 사고방식 곧, 성별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젠더개념,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합법적인 무대는 결혼제도라고 인식해 온 전통적이고 기독교적인 이성애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성관계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이 가능한 것이며, 결혼이라는 제도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성해방인식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기독교교리들을 철저히 성애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 3. 퀴어신학의 종교적, 철학적 배경

고대 희랍철학과 탄드라고 등은 성의 유동성 개념에 근거한 남녀양성자를 이상적인 인간으로 제시했다. 플라톤이 그의 작품 <향연> Symposium 에서 아리스토파네스의 말을 빌려 과거 한 때 인류는 남녀양성자로 존재했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 남녀 양성자는 둥근 모양이었으며, 네 개의 팔과 다리, 두 개의 얼굴과 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힘이 막강했는데, 그 힘으로 신들을 공격했다. 공격을 받은 신은 공격한 인간에 대한 형벌로서 인간들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

---

주장을 논박하고, 기독교회가 동성 간의 결혼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모든 사람의 젠더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옹호하기 위한 길들을 모색 한다” (Tonstad 2018, 5).

그 이후 인간은 불안정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잃어버린 전체성을 향한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다. 플라톤은 인간의 성은 유동적인 것이며, 동성애는 이성애보다 존재적인 의미에서나 도덕적인 의미에서 우월하다고 인식한다 (Platon 1989, 335-38).

7세기 경 힌두교와 불교계 안에서 등장하여 티베트 고원지대까지 퍼진 탄트라교는 신을 본질상 양성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남성성(쉬바)은 적극적이고 활발하며 전기적(electric)이고, 여성성(샤크티)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자기적(magnetic)이다. 성교를 통하여 남성성이 여성성에 귀착하고 여성성이 남성성에 귀착하여 상반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끌리며, 조화롭게 연합되어 양성이 하나로 융합된 완전함에 이르게 될 때 고차적인 존재의 영역 곧, 신의 영역에 이르게 된다 (바노이 2003, 174-75).

근대에 들어와서 성의 유동성 개념의 사상적 틀을 마련한 철학자는 칸트(Immanuel Kant)였다. 칸트는 그의 순수이성비판을 통하여 이성을 통해서 본체계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의 의미는 인간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자율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삶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이 축출되자 자율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사고와 삶이 전개되었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나 규범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이성을 따라서 사고하고 생활하던, 감정을 따라서 사고하고 생활하던, 심리적 기전을 따라서 사고하고 생활하던, 실존적 상황에 따라서 사고하고 생활하던, 아니면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사고하고 생활하던, 더 이상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질서와 규범은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헤겔(George Wilhelm Friedrich Hegel)은 이성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인식주체로서 심지어 이성 그 자체가 신이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이성적 사유를 통하여 통합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와 규범을 인식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으나, 정의 명제와 반의 명제의 변증법적 통합에 궁극적으로 실패함으로써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드러냈다 (Schaeffer 1987, 27; 이상원 2007, 60-61).

헤겔을 정면으로 뒤집어엮은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는 헤겔의 무모함을 꿰뚫어 보고 비이성적인 실존적 순간의 한계체험에서 진리와 규범을 찾고자 했는데, 그 결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와 규범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화되었고, 모든 것은 실존의 경험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이상원 2007, 64-65).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는 야스퍼스(Karl Jaspers), 사르트르(Jean-Paul Sartre), 논리실증주의, 바르트(Karl Barth) 등을 통하여 계승되었다.

영국의 직각론자(intuitionists)들은 진리와 도덕적인 선은 직관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정서론자들(emotivists)은 직관은 곧 감성의 문제이므로 인간의 주관적 감정 또는 감정이 즉흥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곧 진리이고 도덕적인 선이라는 주장을 전개했다 (McIntyre 1984, chapter 2 & 3). 인간의 감정(emotion)이 진리와 규범의 형성주체라면 더 이상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와 규범은 찾을 수 없다.

마르크스(Karl Marx)는 윤리적 기준은 행위자가 속한 계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규범체계는 정치적 운동의 도구로서 계급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부르주아 계급의 윤리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윤리는 다르며, 계급의 이익이 변하면 윤리적 기준도 변한다. 오늘 선한 것이 내일 악이 될 수 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윤리적 바름이란 없다. 윤리체계는 정치적 운동의 도구이자 계급이익의 도구일 뿐이다 (Frame 2008, 77-78).

프로이트(Zigmund Freud)의 성심리학적 인간학은 절대적 진리와 규범의 해체를 가속화시켰다. 프로이트는 종교, 도덕, 부모의 권위를 의미하는 초자아(super-ego)가 잠재의식 혹은 본능적인 원시적인 성적 욕구를 의미하는 이드(Id)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 모든 인류사회의 문제의 근원이므로, 이드가 초자아의 통제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 곧, 원초적 성적 욕구가 종교와 도덕적 규범을 벗어나 자유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류사회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이상원 2007a, 313-39; Freud 1964, 13,15-17, 23-26, 32-38, 45-48,51-56; Freud 1964a, 162-64, 173,174,188,206,207; 쿠비 2018, 47-50).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사고와 삶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제되고 그 결과 절대적 진리와 규범이 퇴각한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절대적 진리와 규범이 자리 잡았던 빈 자리에 탐욕을 신격화하여 올려놓았다. 신격화된 탐욕은 사회윤리적 실천 현장인 정치경제구조의 영역에서는 경제적 이익의 무절제한 추구로 나타났고 개인 윤리적 실천 현장에서는 무절제한 성의 추구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은 긴밀하게 맞물리게 되었다.

정치경제적인 구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시기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공업화와 대량생산이 이루어져 폭발적인 경제발전과 생활의 편의가 대폭 향상된 시기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부가 부유한 자본가들에게 편중되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부의 향유로부터 소외되어 사회구조의 양극화와 두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 곧,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의 건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반에 이미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마르크스가 이룩하고자 하는 사회는 그의 지나친 낙관적인 인간관 때문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실하게 드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유럽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 중독된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은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들에게 새로운 출구를 열어 준 것은 무절제한 성을 추구한 성도착자 사드(Marquis de Sade), 그리고 처제와 성관계를 맺고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하루에 20개씩 시거를 피워대면서 성적으로 방종한 생활을 자행한 프로이트의 성심리학이었다. 좌파 지식인들은 마르크스주의로부터 터득한 혁명 전략을 기독교의 이성애적 규범으로부터 해방된 무규범적인 성해방사회를 추구하는 일에

적용하였다.

마르크스주의와 성해방을 연결시킨 선두 주자는 라이히(Wilhelm Reich, 1897-1957)였다. 라이히는 14세 때 어머니가 자살하고 아버지가 우울증을 앓다가 죽고 본인은 세 차례 결혼을 했으나 모두 이혼으로 끝나는 불행한 삶을 살았으며, 프로이트가 설립한 정신분석학회에서 활동을 했다. 라이히는 건강유지와 혁명시민으로서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 주3회 오르가즘이 필요하다는 오르가즘 이론을 주장했다. 라이히에게 있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방법론 - 자위던, 파트너 교환이던, 동성 간이던, 이성 간이던 - 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하여 전통적인 가족은 해체되어야 하고 어린이들을 성애화시켜서 부모와 관계를 끊어 놓아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재앙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쿠비 2018, 42,43).

킨제이(Alfred Kinsey)는 곤충학자이자 동성애적인 사도마조키스트였으며 통계자료를 자유롭게 위조하는 사기행각을 벌인 인물로서 아이들을 유아기부터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킨제이는 혼전 성관계, 이혼, 동성애, 포르노 관찰 등을 정상적인 성관습이라고 강변했다 (쿠비 2018, 54-55).

킨제이의 후계자였던 머니(John Money)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로서 1960년대에 성정체성 클리닉을 운영하였다. 머니는 인간이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성별의 자유로운 선택을 주장하게 된 의도는 자신의 성전환수술 실패를 합리화시키려는 것이었다. 머니는 쌍둥이 남아들 중 한 명인 브루스 레이머의 포경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레이머의 성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는데, 수술 실패를 위장하기 위하여 아예 성전환수술을 해버린 후 치료에 반항하는 아이를 10년간 여자 아이로 살 것을 강요했다. 아이는 13세 때 남자로 살기로 결심했으나 결국 38세에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머니는 집단 성교와 양성애를 옹호하기도 했다 (쿠비 2018, 56-57).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Jean Paul Sartre)와 계약결혼을 했고 자유연애를 옹호했던 보봐르(Simone de Beauvoir)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여성은 남성에 의해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남성과 동등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여성적 정체성을 부인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보봐르는 전통적인 성도덕과 결혼, 모성, 가족을 거부하고, 낙태의 인권화를 주장했으며, 직장여성 및 남성과의 권력투쟁을 옹호하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의 아젠다를 구축했다 (쿠비 2018, 57-60).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의 성해방개념을 본격적으로 융합시킨 것은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마르크제(Herbert Marcuse) 등이 주도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에 이르러서였다. 마르크제는 쾌락주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혁명적 행동이며, 이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반동, 보복주의자, 반혁명분자, 더러운 자유주의자, 파시스트라고 비판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영향으로 베를린의 집단 공동체인 코뮌 I과 코뮌 II에서 해방된 성 - 불특정인과의 성관계, 아이들 앞에서의 성관계, 어른과 아이의 성관계, 아이들끼리의 성관계 - 이 실행되었고, 아이들이 탁아소에서 반권위적인 방식으로 양육되었으며, 포르노에 대한 금지가 철폐되고 모든 형태의 성이 광고에서 맹위를 떨쳤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68혁명 세대는 정치, 미디어, 법조계, 대학,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고, 유엔과 유럽의회의 권력을 장악했으며, 사회 전체의 성애화를 통해 성을 규제하는 법을 철폐하고자 했다 (쿠비 2018, 64-65).

레즈비언이었던 버틀러(Judith Butler)는 성의 유동성을 말하는 젠더이론을 완성했다. 버틀러는 고정된 성정체성 분류는 언어를 통하여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정치적 변화를 통해 전통적인 성별 질서를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버틀러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별은 환상일 뿐이다.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으며, 생물학적 성은 언어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들어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뿐이다. 성정체성은 유동적이고 변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개의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적 지향에 따른 많은 성들이 존재한다. 사회의 이성애적 표징은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 결혼과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성생활과 출산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며, 여성 위에 군림하는 남성의 헤게모니와 이성애적 성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기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은 근본에서부터 파괴되어야 한다 (쿠비 2018, 75-77).

## II. 퀴어 신학의 삼위일체론

### 1. 성부 하나님

#### a. 계시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커밍 아웃

퀴어 신학에 따르면, 양동이의 물이 불어나면 자연스럽게 양동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처럼, LGBT가 동성을 향하여 품은 사랑이 성적 사랑에까지 미칠 정도로까지 극단적으로 풍부해지고 깊어지면 (극단적인 사랑, radical love), 외부로 커밍 아웃(cumming out)을 하게 된다. 퀴어 신학은 이와 같은 LGBT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개념을 재해석한다. LGBT의 경험은 하나님의 경험과 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바 곧, 인류를 향한 극도로 부요하고 극도로 풍부한 사랑 그 자체이시다. LGBT가 외부로 자기 사랑을 “커밍 아웃”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극단적인 사랑을 “커밍 아웃”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계시다 (Cheng 2011, 44-45).

LGBT가 “커밍 아웃”할 정도로 극단적인 사랑에 들어가는 경우에 LGBT와 다른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경계선이 해소되어 버리는 것처럼, 극단적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계시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경계선을 범신론적으로 허물어 버린다 (Cheng 2011, 45-46). 강자들과 약자들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약자인 LGBT와 강자인 교회 사이의 경계선을 해체시킨다. 이 계시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은 “게이 하나님”(gay God)이다 (Cheng 2011, 46-47; Hinnant 2007, 168). 특히 성전환자의 경험은 인간을 이성애자(heterosexual)와 동성애자(homosexual), 그리고 남자(male)와 여자(female)로 양극적으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구분법을 해체하고, 성정체성을 “부정의 미지(昧知)의 상태”(a state of apophatic unknowing) 곧, “이성애자인가, 동성애자인가를 최종적으로 알기를 거부하는 상태”(a state of resisting any final “knowledge of the polarities of “heterosexual” and “homosexual”)로 두는 것 (Cornwell 2001, 25)이다. 퀴어 신학은 이와 같은 성전환자의 경험을 하나님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知)와 미지의 한계를 철폐해 버린다. 하나님은 모든 제한된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끊임없는 “모름”(unknowing)의 과정을 통하여만 알려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Cheng 2011, 47).

b. “툽”(top)의 위치에서 성교에 참여하시는 “범신범성적 성애”<sup>5)</sup>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인가? LGBT가 이성애와 동성애,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릴 정도로 “범신범성적 성애”를 하는 자들이니 것처럼, 하나님은 범신범성적 성애 그 자체로서, 이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여 모든 고정된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다 (Cheng 2011, 50-51). 범신범성적 성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신과 인간의 경계선, 삶과 죽음의 경계선만 허무는 분이 아니라 성교의 대상을 이성으로 한정하는 경계선과 성별을 남자와 여자만으로 한정시키는 경계선까지도 허물어 버리고 자신이 “유동적인 젠더감성”(a fluid sense of gender)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감성은 피조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간에 이루어지는 “성애적 우정”(erotic friendship)으로 나타난다 (Cheng 2011, 51; Heyward 1989, 99-103; ).

퀴어 신학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교의 경험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재해석한다. 남성간

---

5) 쉐이 퀴어신학의 사랑을 “극단적인 사랑”이라고 정의했으나, 필자는 앞에서 “극단적인 사랑”이 범신적이고 범성적인 개념임이 설명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이 용어를 “범신범성적 성애”(pantheistic and pansexual sexual love)라고 바꾸어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로, 쉐이 말하는 극단적인 사랑의 내용은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지 않는 범신론을 깔고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적인 사랑 특히 동성애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로, 통상적으로 극단적인 사랑이라고 할 경우에 하나님이 신자들을 향하여 보여 주시는, 성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데, 성애를 극단적인 사랑이라고 부르게 되면 중대한 용어상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쉐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실제로는 동성 간의 성적인 사랑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극단적인 사랑이라는 용어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되면 독자들은 동성 간의 성교가 마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동질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

의 성교를 행할 때 위에서 남자의 역할을 하는 파트너를 “톱”(top)이라고 하고, 밑에서 여자의 역할을 하는 파트너를 “바텀”(bottom)이라고 하는데, 퀴어 신학은 하나님의 전능성 (omnipotence)을 성관계에서 “위에서 덮치는”(superimposing) 역할로 해석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허물고 다윗과 동성애적인 관계를 가지셨는데, 이 관계에서 위에서 덮치는 “톱”의 역할을 하셨다고 한다. 하나님은 “톱”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바텀”의 위치에 두고 덮치는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신다 (Cheng 2011, 52; Jennings 2001, 36-74). 퀴어 신학은 성적으로 덮치는 “톱”의 위치에서 인간들과 가학피학적(sadomasochistic) 성관계를 즐기는 색광(色狂)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 한다 (Cheng 2011, 52; Boer 2001, 105). 에이즈로 고통 받는 어떤 퀴어 신학자는 에이즈의 가공할 만한 고통을 이 세상 안에 있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에이즈로 고통 받고 있는 자신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것은 도로시 쥘레(Dorothy Sölle)가 말한 “가학피학적 영성”(sadomasochistic spirituality)에 불과한 것이라고 혹평 한다 (Williams 1992, 96, 100; Cheng 2011, 53). LGBT에게 흔히 나타나는 “드래그”(drag, 여장남자나 남장여자)의 경험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재해석하는데 적용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하나님이 “자연적”이거나 혹은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속성에 반대하는 분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쇼”(drag show)를 연기하는 수행성(performativity)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성은 전성적(omnisexual), 전성별적(omnigendered), 전퀴어적(omniqueer) 특성을 의미하며 “항상 변화하고, 이동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전환적인 실재 (Hipsher 2001, 99)”를 뜻하는 것이다 (Cheng 2011, 54).

### c. 삼위일체의 관계는 난교(亂交)와 다자성애

LGBT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수로 자행되는 난잡한 성교와 다자성교의 경험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데 반영한다. 삼위일체는 내재적인 범신범성적 성애의 공동체다. 범신범성적 성애는 삼위의 세 위격이 황홀경의 춤을 추거나 혹은 상호 침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위 사이는 “유동성에 기반하여 삼위가 세 방향으로 다자성애를 행하는 관계”(a fluid-bonded polyamorous three-way relationship)다.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삼위일체 사이의 관계는 두 당사자 간(binary)의 성관계(자녀출산을 목표로 하는 일부일처제적인 두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성관계가 아닌 관계들(많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배타적인 아닌 우정)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다 (Cheng 2011, 56). 이 말의 의미는 삼위가 이미 두 당사자를 넘어서 세 당사자 간의 관계이므로 삼위 사이에서 다자적인 자유로운 난교적인 성관계가 가능해진다는데 뜻이 다름 아니다. 퀴어 신학은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관능적인 우정”(passionate friendship)이라고 규정한다. 이 관능적 우정은 성관계와 비성관계의 인위적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며,

두 당사자에 기반한, 일부일처적이고, 자녀출산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적인 성관계를 대체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기독교인들도 삼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난교적인 관능적인 우정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Cheng 2011, 56-57; Stuart 1995, 240-44; Tonstad 2018, 93).

삼위 사이의 관계는 초남성적인 동시에 초여성적이다. 따라서 이 관계는 성전환적이고 “자리 바꿈”을 할 수 있는 유동적인 관계다. 삼위의 각 위들은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며, 또한 “툽”이기도 하고 “바툽”이기도 하다 (D’Costa 2007, 277-79; Tonstad 2018, 94-95).

퀴어 신학은 삼위일체가 이성애와 일부일처를 비판한다고 보았다. 젠더-유동성과 다자성에 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전성적(全性的) 비움”(omnisexual kenosis)의 과정을 통해 두 당사자에 기반한 관계를 허물고 “제한된 다중신실성”(restricted polyfidelity) 곧, 삼위가 삼위 안에 제한된 서로에 대한 진실한 성관계인 난교(orgy)에 들어간다. 그런데 삼위 각자는 자신만의 비밀의 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지된 욕망”을 숨겨 놓고 있다(예컨대, 예수는 밀회를 즐기기 위한 이성 애인인 막달라 마리아와 동성 애인인 나사로를 숨겨 놓았다). 삼위일체는 두 당사자를 기반으로 한 결혼 및 가정 배우자를 해체하고 다자성애를 위한 모델이 된다 (Cheng 2011, 58-59; Althaus-Reid 2003, 57-59).

#### d. 창조: 하나님의 범신범성적 성애의 쏟아부음

퀴어 신학에 있어서 창조세계는 범신론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이므로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남녀의 구별과 두 당사자에 기반한 성교의 벽을 허물어 버린 상태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다자적 난교가 창조세계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범신범성적 성애의 쏟아 부음”(God’s outpouring of radical love)이다. 하나님의 범신범성적 성애의 쏟아 부어짐은 퀴어인들의 일상의 삶 속에 나타난다. 창조는 범신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다. 이 몸 안에서 “진화적인 우주적 난교”(evolutionary cosmic orgy)가 벌어진다. 이 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성애적으로 관계한다. 이 성애는 당사자가 누구든, 몇 명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Cheng 2011, 62-63; Boisvert 2004, 179).

창조세계에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범신범성적 성애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의 구분도 허물어 버린다. 그 결과 성애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아담과 이브)에만 한정시켰던 구별이 허물어지고 남자와 남자(아담과 스티브) 사이에도 확장되며, 동물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동성 간, 그리고 젠더적 다양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미가 인간에게도 나타나 남성간의 성교, 양성적 성교, 성전환적 성교가 허용 된다 (Cheng 2011, 62-63).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창조를 하셔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으셨고, 따라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셔야 할 압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은혜로서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성취하기 위하여 출산을 해야 할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제한될 필요가 없다. 출산이 아니라 조건 없이 자기를 주는 사랑이 모든 형태의 헌신적인 관계의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 (Cheng 2011, 66-67; Rogers 1999, 199; Stuart 2007, 67).

## 2. 성자 하나님

### a. 죄: 범신범성적 성애의 거부

죄를 해결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범신범성적 성애를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인식된다. 그러면 퀴어 신학에 있어서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통적인 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퀴어 신학에 있어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곧, 범신범성적 성애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범신범성적 성애를 거부하는 것은 성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을 구분하는 경계선 허물기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 한다 (Cheng 2011, 70-71).

퀴어 신학은 성교의 대상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로 한정시키고,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고정시키기를 고집하면서 범신범성적 성애를 거부하는 태도를 본질주의(essentialism)라고 명명한다. 본질주의는 성애를 이성애와 동성애로 구분하는 것이 본질적인 성애의 관념이라고 간주하는 태도를 뜻한다. 성애를 이성애와 동성애로 구분하는 경계선을 허물어서 이 구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다. 퀴어적 정체성은 여자와 남자의 전통적인 범주를 해체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전통적인 범주가 인위적으로 구성된(constructed)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본질주의가 범하는 죄다. 이 범주의 본질주의적 성격에 도전하여 새롭게 범주를 구성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가 바로 구원의 은혜다 (Cheng 2011, 74).

### b. 예수 그리스도: 자웅동체적 남녀양성자

퀴어 신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범신범성적 성애의 체현(體現, embodiment) 혹은 육화(肉化 made flesh)로 해석된다.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는 “경계선을 비범하게 넘나드는 자”(the boundary-crosser extraordinaire)로서, 신적인 경계선, 사회적 경계선, 양성적 경계선, 젠더적 경계선을 가리지 않고 넘나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지상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에 이와 같은 경계를 넘나드는 자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Cheng 2011, 78-80).

퀴어 신학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을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속성들 곧 두 성의 생식기

혹은 염색체를 모두 가진 자웅동체 혹은 간성적 존재로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예수님은 처녀잉태의 결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단성생식(單性生殖, parthenogenetic)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오는 Y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표현형으로서는(phenotypically) 남성이지만 염색체상으로는 여성이다 (Cheng 2011, 83-94; Stuart 2007, 65; 이상원 2020, 137-38). 예수는 남자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자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 (Mollenkott 2001, 105-106).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어나신 아들이지만 가족관계라는 경계선을 허물고 어머니 마리아의 “유아 배우자”(infant spouse)로서 단지 마리아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예비 연인, 배우자, 남편이 되어 근친간의 성애를 나눌 자로 묘사 된다 (Cheng 2011, 87, 89, 90; Beatie 2007, 294, 300; Ward 1999, 164).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범신범성적 성애의 체현이자 “경계선 넘나들”이다. 예수님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경계선을 해체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경계선 곧,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경계선도 해체시키셨다. 남성과 여성 간에 이루어지는 양성적 성관계는 자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구성물(a social construct)이다. 치약뚜껑을 덮어 놓는가, 아니면 열어 놓는가, 화장지를 굴림쇠의 위로 나오도록 해 놓는가, 아니면 아래로 나오도록 해 놓는가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인 것과 같은 이치다 (Cheng 2011, 80-81). 퀴어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동시에 양성애적으로 끌리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관계하신 사건을 예로 든다 (Cheng 2011, 81; Wilson 1995, 147).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적-성전환적 인간으로서 사도 요한과 동성 간의 성교를 가지시는 동시에 막달라 마리아와는 이성적 성교를 가지셨고, 범성적(pan-gendered)이고, 만능성애적인(omni-erotic) 성령과도 성관계를 가지셨다 (Cheng 2011, 84; Cherry 2006, 139). 예수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 안에 갇히지 않으신다. 예수는 소위 “영광스러운 모호함”(glorious ambiguity)을 받아 들여 자신을 단순한 법전적인 의미에서 게이나 이성애자나 어느 한 범주로 간주되는 것을 거부한다. 예수는 남성 동성애자(gay), 이성애자(straight), 여성 동성애자(lesbian), 양성애자(bisexual), 삼성애자(三性愛子, trisexual) 등 사이에서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신다. 예수의 성생활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를 원한다면 자위행위나 근친성교를 해 보면 된다. 양성애적-성전환적인 그리스도는 대부분의 교회에게는 너무나 낮은 존재(queer)이며, 퀴어인들에게는 너무나 기독교적인 존재다 (Cheng 2011, 81-82,84; Dykstra 2000, 86,87; Cherry 2006, 11,140). 퀴어 신학은 마가복음 14:51-52에 등장하는 벌거벗은 젊은이가 예수의 동성 연인이었다고 주장한다(Cheng 2011, 81; Williams 1992, 118-20).

퀴어 신학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갈라디아서3:28을

성전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해체한 본문으로 해석 한다 (Cheng 2011, 82). 예수님을 이성의 옷을 즐겨 입는 복장도착자(transvestite)로서 자신이 고정된 성별을 말하는 본질적 범주에 매이기를 거부하시고 젠더범주의 구성화된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 한다 (Cheng 2011 82; McLaughlin 1993, 139-41).

귀어 신학은 예수님이 간성적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브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십자가 위의 예수님의 옆구리에 찢려 난 상처를 예수의 신부를 낳는 “여성성기”(female genitals)로 간주하는 동방정교의 해석을 가져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몸이 성상화(iconicity)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유동하는 대상지시기호(floating signifier)가 되어 모성적인 몸(maternal body)을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의 어떤 부분이 무엇을 지시하는가?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찢려서 상처가 나고 피와 물이 나왔는데(요19:34), 이 상처는 곧 여성의 자궁이고 이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는 곧 여성의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이며 또한 젖이다. 이처럼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동동체로 지니고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는 여성으로 전환되신다. 간성이신 그리스도는 남성인 동시에 여성 곧, 양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다 (Cheng 2011, 84; Mollenkott 2001, 106; Stuart 2007, 66; Patridge 2012, 127-32).

귀어 신학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성별을 완전하게 재규정하는 수술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을 통하여 “다성적인 몸”(multi-gendered body)이 된다. 그리스도의 다성적인 몸 안에 있는 성도들도 투과적이고, 범신체적이고, 자리바꿈이 가능한(permeable, transcorporeal, and transpositional) 몸이 된다. 자리바꿈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뒤바뀐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몸은 이성애를 드러내기도 하고, 동성애를 드러내기도 하는 등, 성의 구별을 넘어서는데, 예수님의 성정체성은 어떤 사람과 관계하는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예컨대 요한복음20장1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시도한 행동은 남성의 입장에 서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이성애적인 사랑을 주고받은 사건이며, 요한복음20장27절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에 찢린 상처에 손을 넣는 사건은 예수님이 여성의 입장에 서서 도마와 더불어 동성애적인 사랑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성전환자들은 자신들의 일부가 죽고 새로운 성별로 재탄생할 때 “부활의 감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부활에 참여한다. 성별이 재규정된 성전환자들은 예수님처럼 “같으면서도 다른” 자가 된다. 성전환자들은 죽지 않으면서도 전적으로 다른 존재로 되돌아 온다. 변형되고 부활한 성전환자들은 어느 한 성별로 쉽게 범주화되지 않는다 (Cheng 2011, 83; Tanis 2003, 142-43; Stuart 2007, 66; Ward 2007, 78; Hollywood 2007, 163).

### c. 구속: 범신범성적 성애를 통한 희생양삼기를 끝내기

퀴어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궁극적인 희생양으로의 죽음으로 해석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회 안에 있는 내부자들이 무고한 외부자들을 제거하는 “희생양삼기 장치”(scapegoating mechanism)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퀴어 신학은 구태의연한 성별규범 안에 안주하고자 하는 비LGBT들이 성과 성별의 경계선을 허물고자 하는 LGBT들을 밀실에서 살도록 강요하거나 서품을 거부하거나 교회의 지도자 역할로부터 배제하는 등 희생양 삼기를 할 때, 이 희생양 삼기를 종결시키고 성과 성별의 양극적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 곧 구속이라고 해석한다 (Cheng 2011, 94-97; Glaser 1998, 20-24,33,39).

### 3. 성령 하나님

#### a. 성령: 범신범성적 성애로 인도하는 보혜사

퀴어 신학에 의하면 LGBT에게 있어서 범신범성적 성애로 돌아가는 것이 성화 (sanctification)인데, 성령은 성화를 도와주는 보혜사(paraclete)다.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에 놓인 모든 경계선들을 허물면서 범신범성적 성애라는 최종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사람들을 안내하는 옛날의 자석 나침반 혹은 현대의 위성위치추적장치(GPS<global positioning system> device)와 같다 (Cheng 2011, 100-101).

LGBT인들은 실내 공간 안에 퀴어인이 있을 때 이 퀴어인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 중에 자신이 퀴어인임을 드러내는 신호를 능숙하게 감지하는 “게이다”(gaydar, gay와 radar의 합성어)라고 농담조로 호칭한다. 성령은 게이다와 같이 LGBT인을 감지해 낸 다음에 범신범성적 성애로 이끌어 간다. 범신범성적 성애에 들어가면 깊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욕구와 성욕 안에서 타인을 향하는 욕구가 연결된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통제를 성령에게 맡기는 것은 인간의 성욕이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과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게 된다. LGBT인이 해변에 있는 익명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짙은 오르가즘을 느끼는 순간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방언의 은사가 시작되어 성적 경험과 기도생활을 구분할 수 없게 되며, LGBT인과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성령은 일종의 “낯선(queer) 강력 접촉제가 되어 범신범성적 성애 안에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을 붙여놓는다 (Cheng 2011, 101-102; Coakley 2009, 45; Williams 1992, 204).

성령은 LGBT를 범신범성적 성애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분리해 놓은 각종 장벽들을 허물어 버린다. 첫 번째 허문 장벽은 성과 교회 사이의 장벽이다. 남성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오순절 교단으로부터 추방된 페리(Tory Perry)목사가 설립한 MCC(the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es, LA)가 그 예다 (Cheng 2011, 102-103). 두 번째 허문 장벽은 성에 관한 사적 담화와 공적 담화의 장벽이다. 사회는 반규범적인 성행위들에 관한 담화를 사적 영역에 가두어 놓았었다. 성령은 LGBT들이 숨어 있는 밀실을 허물고 자유롭게 “커밍 아웃”하도록 이끈다. 1969년의 스톤월폭동은 성적 담화와 관행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놓았던 벽을 허물어 버린 대표적인 사건이다. 스톤월 폭동이 일어난 당일 저녁 성령은 스톤월 여관 안에 있는 “여장을 한 남성 동성애자”(drag queens)과 “남장을 한 여성 동성애자”(bulldykes) 사이에서 일하셨으며, 이들에게 능력을 부여 게이바의 은밀한 문화공간을 빈번하게 급습해 온 경찰에 공개적으로 대항하고 싸워 물리치게 했다 (Cheng 2011, 103; Williams 1992, 189; Alison 2006, 208-31). 세 번째 허문 장벽은 통일성과 다양성 간의 장벽이다.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LGBT인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이성애(異性愛)적 규범적 관계에 저항하고, LGBT 다양성을 경축한 데 있다. LGBT 다양성은 그 구성원에 있어서 남성 동성애 성인 시민들, 퀴어 젊은이들, BDSM(bondage<끈으로 묶어 놓고 성관계를 함>, discipline<때리면서 성관계를 함>, and sadomasochism<가학피학성 성교>) 가족 공동체, 여장남자 공동체가 모두 포함되며, 장소에 있어서 술집, 목욕탕, 여성전용방, 열두단계그룹방, 회당, 교회, 회교사원, 애쉬람(ashram, 힌두교의 암자), 섹스 클럽, 로데오, 독서회, 카페, 대학 강의실, 신학교 강의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 (Cheng 2011, 103-104; Bohache 2006, 568-70) 네 번째 허문 장벽은 법과 무법의 장벽이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은 불법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반율법주의 면허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Cheng 2011, 104-105; Rogers 1999, 247-48).

#### b. 교회: 범신범성적 성애의 외적 공동체

교회는 성령의 사역으로서 신령한 몸(고전15:44)이다. 교회는 범신범성적 성애의 외형적 공동체다. 동성혼과 젠더적으로 다양한 결혼, 근친적 동반자들, 다자성애적 관계들, 더 넓은 우정망 등과 같은, 퀴어인들이 만든 선택된 가족들은 많은 성관계들, 성별들 그리고 인종들로 구성된 하나의 몸인 교회다. 이 교회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갈라디아서3:28를 따라서 다양한 성애관계, 성별들 그리고 인종들을 분리하는 장벽들이 허물어진다. 교회는 범신범성적 성애로 돌아가는 한 길이다 (Cheng 2011, 106). 퀴어 신학은 교회의 네 가지 표지들인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퀴어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재해석한다.

통일성. 통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는 역설적이게도 지체들 간의 관계적 구성의 다양성을 인식한다. 기독교인들은 “연구적인 다공성(多孔性, porousness)”의 상태로 부름을 받는데, 다공성이란 자신을 타인에게 개방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자신을 타인에게 개방하는 하나의 방법은

결혼과 성관계를 통해서다 (Cheng 2011, 107; Stuart 2003, 113). 새로운 교회론은 교회를 묘사할 때 이성애적 결혼의 비유를 사용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은 영구적인 소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관계적 다공성의 특징들과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는 욕망을 비유로 사용하여 자신을 묘사해야 한다. 욕망은 무엇인가? 욕망은 타인과 끊임없이 친밀해지려는 갈망을 의미하며, 정신적인 우정으로부터 일회성 성관계를 거쳐서 평생의 동반자관계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퀴어적 관계들을 열어 놓는다 (Cheng 2011, 107-108; Lakeland 2010).

거룩성.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곧, 하나님의 은총이 지상에 나타나는 곳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총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이 거룩성인데, 그 방법은 타인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다. LGBT인들에게는 극단적인 관대함이 익명의 성애적인 만남을 통하여 나타난다. 타인을 환영하고 관대함을 베푸는 한, 어떤 성교행위 - 익명의 대상과의 성교이든, 아니면 공동체적 성교이든 - 도 금지되지 않는다. 모든 성별은 무너져서 기독교인 안으로 통합되어 버린다. 퀴어인들은 순회 성 파티, 신체전기자극학교(the Body Electric School)에서의 알몬 성애 마사지, 성교파티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반정통적인 장소들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Cheng 2011, 108-109; Stuart 2003, 113; Rudy 1997, 129; Brant 2001, 32-44; Gorrell 2005, 313-26; Goss 2002, 56-71; Kelly 2007, 211-14).

보편성. 퀴어 신학은 교회의 보편성을 다양성 안에 있는 통일성으로 정의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한 몸이지만 동시에 모든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모든 신자들 안에는 많은 젠더 정체성, 성별, 성행위들이 포함된다고 주장 한다 (Cheng 2011, 109; Stuart 2003, 114).

사도성. 퀴어 신학은 사도(apostolos)가 지닌 특수한 의미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일반적인 의미인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만을 취하여 적용한다. 퀴어 신학은 물리적인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교회의 소명인데, 이 소명이 유동적인 사이버 공간 안에서 성행위의 유형들, 성별, 계급, 지리적 차이 등을 나누는 언어학적 구분을 비롯한 기타 경계선들이 허물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Cheng 2011, 110-11; 2006, 238).

### c. 성례: 범신범성적 성애의 미리 맛보기

퀴어 신학에 있어서 성례는 하나님의 범신범성적 성애와 연합될 때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운명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퀴어 신학에 있어서는 “커밍 아웃”이 성례다. 왜냐하면 성례가 물, 빵, 기름 등등을 사용하는 “감각적인 영적인 일”인 것처럼, 커밍 아웃은 퀴어인들을 해방시켜서 시각, 소리, 접촉, 미각, 냄새를 통한 다른 퀴어인들과의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Cheng 2011, 120; Glaser 1998, 5).

세례. 세례는 교회입문예식으로서 옛 생활에 대하여 죽고 새 생활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한다. 퀴어 신학에 있어서 세례는 수세자에게 자신이 현재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범주에 들어가지 말고 그가 전혀 선택해 본 일이 없는 연대성에 근거한 새로운 범주에 속할 것을 요구한다. LGBT인들에게 있어서는 커밍 아웃이 곧 세례인데, 왜냐하면 커밍 아웃 시에 숨겨왔던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Cheng 2011, 121; Glaser 1998, 12). 세례를 받을 때 젠더와 생물학적 성의 구분, 그리고 기타 정체성의 표지들이 지워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정체성만 남는다 (Cheng 2011, 121; Stuart 2007, 66, 67; Williams 2000, 209).

성찬. 퀴어 신학은 로마 가톨릭의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행동하는 사제가 빵과 포도주에 축성(祝聖)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무성적인 몸으로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성찬 시에 그리스도님의 몸은 중립적인 형태의 빵으로 변형되고 확장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더 이상 단순히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몸이 아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한, 이 몸은 다양한 성, 성별 그리고 기타 정체성들로 구성되는데, 성찬은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것들이 아님을 드러낸다 (Cheng 2011; Stuart 2001, 136). 성찬 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한다. 다시 말해서 성찬 시에 교회의 구성원들인 신자들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불안정성, 유동성, 전환가능성을 가진 몸이 된다. 성찬은 종말론적인 삶을 예기하는 바, 이 종말론적인 삶에서 인간은 성별과 이에 근거한 성적 정체성이 궁극성을 잃고,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와도 같이 무성적이고 천사와도 같은 상태가 된다 (Cheng 2011, 123; Stuart 2007, 66, 71; Ward 1999, 168).

#### d. 종말론적인 지위집

퀴어 신학은 종말의 때에 “신령한 몸”(고전15:44)을 입을 때 생물학적인 성과 젠더적 성별을 포함한 모든 고정된 정체성이 지워지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만이 남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문화적으로 구성된 모든 정체성을 조롱하고 뒤엎는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동성애와 이성애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해체되고 세례의 옷만이 남게 되며 모든 신자들은 결국 성전환자가 될 것이다 (Cheng 2011, 131-32; Stuart 2007, 65,74-75; Jordan 2007, 290).

### III. 퀴어 신학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비판

#### 1. 퀴어 신학의 정의의 문제

퀴어 신학의 출발점은 정통신학이 동성애를 “낮설고 이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비판한다는

점을 반대로 뒤집어서 정통신학 자체가 “낮설고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통신학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과 동성애는 본질이 같고 따라서 정통신학의 신학적 주제들은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신학 자체가 “낮설고 이상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통신학 자체가 지니고 있는 신학적 주제들을 “낮설고 이상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와 정통신학이 동성애를 “낮설고 이상한” 것으로 파악할 때 이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가 판연하게 다르다는 데 있다. 퀴어 신학은 “낮설고 이상한”이라는 표현이 지니는 다양하고 복잡한 함의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여자적 동일성만을 자의적으로 부각시킨다.

정통신학의 신학적 주제들이 “낮설고 이상하다”는 말은 이 주제들이 불신자들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이성과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되기 어려운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는 인간의 경험밖에 있고, 또 재료가 있어야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기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납득이 잘 안 되는 사건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제3자가 형벌을 대신 받고 사면해 준다는 원리를 담고 있는 대속의 구원론도 불신자의 이성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성경에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행하여진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사건,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해가 중천에 머무른 사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동정녀에게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사건, 오병이어사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 병이 치유된 사건 등이 모두 이성의 관점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며, 부활의 소망도 이성이나 경험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듭난 신자들의 이성의 관점에서는 이런 일들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경험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들로 인식된다.

그러나 정통신학이 동성애를 낮설고 이상한 것으로 볼 때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 정통신학의 입장에서 동성애가 낮설고 이상하다는 말은 동성애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통상적인 상식적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과 보편적인 인류의 성윤리에 반하는 비도덕적인 성적 관행이며, 남성 동성애의 경우에 배설기관과 생식기관의 기괴한 접촉이라는 점에서 생물학적 상식에 반하며, 이런 접촉을 통하여 각종 질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인 상식에도 반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학적 주제들의 낮설고 이상함과 동성애의 낮설고 이상함은 연결시킬 수가 없다.

## 2. 범신론의 문제

퀴어 신학의 신론이 드러내는 첫 번째 문제는 명확하게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일시하는 범신론

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쿼어 신학의 계시론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고 있으며, 창조세계는 범신론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이자 창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된다. 성령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모든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자로 인식된다.

물론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내재하시지만 창조주로서 피조물로부터 철저히 질적으로 구분된 모습으로 내재하신다.<sup>6)</sup> 세계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며 하나님과는 구별된 어떤 것이어서 하나님과는 정도에서만 아니라 본질적 특성들에서도 다르다. 하나님은 자존적이고 자족적이며 무한하고 영원하신 반면에, 세계는 의존적이고 유한하며 시간적이다. 하나님은 결코 세계로 바뀔 수 없다. 우주는 하나님의 존재 형식이 아니며, 절대자의 현상적인 나타남도 아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생명이나 영혼 혹은 세계의 내적 법칙이 아니라 세계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세계 위에 계셔서 자신의 영원히 완전한 생명을 향유하신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벌코프 1997, 339; Schaeffer 1987, 211-22).<sup>7)</sup> 하나님과 피조물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양자를 질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피조물을 신성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하지만 이보다도 더 필연적인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초월성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인 반면에 피조물의 속성들은 인간이 100% 경험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을 경험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공허한 관념으로 끝나기 쉬운 반면에,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경험이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실체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피조물로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심대한 손상을 가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단으로 판명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제1계명을 통하여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 올리지 말 것을 명령한 다음에 제2계명에서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을 주신 것이다 (Douma 1992, 25-98; Von meyenfeldt 1978)

### 3. 신성모독적인 범신론(1): 하나님을 반창조질서적이고 반생물학적인 성전환자와 동일시함

쿼어 신학은 하나님을 자신이 설정하신 창조질서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둔갑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본성과 말이 서로 다른 위선적 존재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6)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는 이사야55장8-9절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뻐하며 존재하느니라”는 사도행전17:28-29절 말씀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증언하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라는 이사야57장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증언한다.

7) 피조물과 하나님의 존재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증언하는 본문은 시편102편265-27절이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신다. 천지는 다 옷 같이 낡아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시고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다.

거룩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다.

퀴어 신학은 하나님을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유동적인 자웅 동체적 존재로 일관되게 제시한다. 퀴어 신학은 인간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양극적으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구분법을 해체하는 성전환자의 경험을 하나님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을 유동적인 젠더감성을 지닌 존재로 제시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전성적(omnisexual), 전성별적(omnigendered)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이 성전환적인 실재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위 사이의 관계도 성전환적이고 자리바꿈을 할 수 있는 유동적인 관계로 이해된다. 삼위의 각 위들은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며, 톱이기도 하고 바텀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계선을 비범하게 넘나드는 자로서 양성적 경계선, 젠더적 경계선을 가리지 않고 넘나든다. 예수님의 성육신 때 처녀잉태의 결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단성생식이며,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오는 Y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예수님은 표현형으로는 남성이지만 또한 여성으로서 자웅동체이시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사회적 구성물인 양성적 관계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이다. 예수님은 게이나 이성애자나 어느 한 범주로 간주되는 것을 거부한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갈라디아서3장28절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해체한 본문으로 해석된다. 자웅동체이신 예수님은 간성적 존재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인데, 이 상처가 여성성기로 간주된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은 여성으로 전환되신다. 부활은 성별을 완전하게 재규정하는 수술로서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다성적인 몸이 되어 예수님은 이성애를 드러내기도 하고 동성애를 드러내기도 하신다. 새로운 성별로 재탄생할 때 부활의 감성을 느낀다. 성별의 양극적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 곧 구속이며, 성령은 남성과 여성의 경계선을 허물면서 여장을 한 남성 동성애자(drag queens)들과 남장을 한 여성 동성애자(bulldykes) 사이에서 일하신다. 오순절 사건은 이성애적 규범적 관계에 저항하고 온갖 성적 일탈이 지행되는 동성애시민들, 퀴어 젊은이들, BDSM, 가족 공동체, 여장 남자 공동체, 술집, 목욕탕, 여성전용방, 열두단계그룹방, 회당, 교회, 회교사원, 애쉬람, 섹스 클럽, 로데오, 독서회, 카페, 대학 강의실, 신학교 강의실 등에 역사하신다. 교회는 성별을 해체한 자들의 공동체이며, 세례 받을 때 젠더와 생물학적 성의 구분이 지워져 버리며, 성찬 시에 그리스도의 몸은 남성의 몸이 아닌 무성적인 몸으로 변화되며, 신자의 몸도 같은 몸으로 변화시킨다. 종말론적인 삶은 성별의 구분이 해체된 삶이며, 신령한 몸은 모든 고정된 성별 정체성이 지워진 성전환자의 몸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성별에 대하여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로, 창조 시부터 종말의 날까지 인류의 성별은 남자와 여지라는 양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으며, 이 양성질서에서는 남성이 여성으로 또는 여성이 남성으로 환원되거나, 두 성이 섞이거나, 두 성이 동체로서 한 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퀴어 신학은 양성질서가 사회의 문화적 구성적

산물이므로 문화가 바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오히려 성별을 유동적으로 파악하는 젠더주의가 사회의 문화적인 구성적 산물이고 양성질서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차원에서 정해주신 객관적인 과학적 진리 곧,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질서로서 인간이 주관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별에 관하여 말하는 본문은 창세기1장27절과 28절이다.<sup>8)</sup> 이 본문은 뒷부분부터 거슬러 올라가 읽으면 다음과 같은 구도가 나온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문화대명령), 둘째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여기에는 성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셋째로, 성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본문은 성별에 대하여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한다. 첫째로, 성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별은 딱 두 개다. 하나는 남자. 다른 하나는 여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 이외에 다른 성별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정하신 후에 이 성별을 변경시키는 어떤 말씀이나 조치를 취하신 일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양성질서는 인간의 주관적인 문화적 구성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양성질서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질서로서 문화적 구성물이 아니라는 말은 양성질서가 생물학적인 과학적 사실의 문제일 뿐, 인간의 주관적인 의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점은 창세기1장27절과 28절에 사용된 히브리어에 의하여 돌이킬 수 없니 확정된다. 본문에 사용된 남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이며, 여자라는 단어는 니케바다. 하나님이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성별을 결정하실 때 이 두 단어를 사용하셨다. 자카르와 니케바는 영혼을 배제하고 생물학적인 몸을 지칭하는 단어다. 영혼이 배제된 생물학적 신체구조만 보면 인간과 다른 동물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용어가 인간과 동물에게 모두 사용된다. 자카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컷”이고, 니케바는 “암컷”이다. 이 말의 의미는 성별을 결정할 때는 생물학적 신체구조만을 고려해야 하고, 인간의 주관적 인지는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염색체 구조가 XY이고, 이 염색체 정보에 따라서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이고, 염색체 구조가 XX이고, 이 염색체 정보에 따라서 여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다. 그것으로 성별결정은 100% 끝난 것이다. 아무 것도 덧붙일 것이 없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한 몸 안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간성(intersex)은 독립된 또 하나의 성이 아니라 염색체, 고환이나 난소, 성 호르몬, 성기 등 성적 특징에 여러 변이가 생긴 상태로 태어난 경우로서 의과적 조치를 통하여 남성 혹은 여성으로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일종의 희귀 질병일 뿐이다(민성길 2020, 112; 이세일 2021; 류현모 2021).

---

8)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이 한 몸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 가운데 하나로서 인간 안에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으로서 실재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어 왔으나, 이 주장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논박되어 현재는 이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간에게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주장,<sup>9)</sup> 성호르몬 분비에 의하여 동성애가 유발된다는 주장,<sup>10)</sup> 뇌구조에 의하여 동성애가 유발된다는 주장<sup>11)</sup>이 모두 논박되었다.

9)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가설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간접적 유전자결정가설과 직접적 유전자 결정가설이라는 것이 있다. 간접적 유전자결정가설이라는 것은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쌍둥이의 어느 한 편이 동성애자이면 다른 한 편도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실험을 통하여 입증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1952년에 칼만(F.J. Kallman)이 실험을 하고 이 주장을 전개했지만 이 연구결과는 통계적오작임이 드러났다 (Kallman 1952, 137-59). 1992년 후반에 마이클 베일리(Michael Bailey)와 리차드 필라르(Richard Pillar)가 수행한 보다 정교한 연구는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고 특히 일란성 쌍둥이의 절반 정도가 일치된 성적 지향을 보여 주었다고 보고했다 (Bailey and Pillard 1991, 1081-96; Bailey, Pillard, Neale and Agyei 1993, 217-23). 그러나 이 연구는 표본선택의 무작위성 (Jones and Yarhouse 2000, 73-79; Jones and Yarhouse 1997, 446-77), 다른 연구에서의 재현실패 (King and McDonald 1992, 407-9), 수치의 조작 (Jones and Yarhouse 2000, 76-77) 등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1995년에 일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2010년에 스웨덴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 이 연구도 조사과정의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연구이지만 - 는 10% 내외의 일치율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길원평 외 2016, 43-47). 직접적 유전자결정가설은 1993년에 딘 해머(Dean Hamer)가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Xq28이라고 명명된 이른바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보고한 것을 뜻한다 (Hamer, Magnuson, Hu and Pattatucci 1993, 320-26). 그러나 이 실험은 재현에 실패했고 (Rice, Anderson, Risch and Ebers 1999, 665-67), 표본선택이 잘못되었으며, Xq28 자체가 동성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Jones and Yarhouse 2000, 81). 특히 2019년 미국 브로드 인스티튜드(the Broad Institute)의 안드레아 가나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47만여명의 유전자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려 동성애 유전자 실재여부에 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엄남석 2018; 민성길 2020a, 178; Gana et al 2019).

10)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호르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운 가설들로는 성인 호르몬 가설과 산전 호르몬 가설이 있다. 성인 호르몬 가설이란 19세기에 등장한 가설로서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성호르몬 수치가 높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반면에 여성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고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다는 사색을 말하는데, 현대의학은 동성애자들과 이성애자들 사이에 호르몬 수치상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Jones and Yarhouse 2000, 61). 산전 호르몬 가설로는 첫째로, 동물 성 호르몬 투여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비정상적인 높은 수치의 성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동성애의 성행동을 보였다는 주장을 뜻한다 (Ellis and Ames 1987, 233-38). 그러나 이 실험은 통상적인 상관관계에서 실험 시에 조성한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호르몬 분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Jones and Yarhouse 2000, 62). 단순히 본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동물의 성과 인격적인 요소가 깊이 관여하는 인간의 성과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신뢰성이 의심되었다 (이상원 2014, 10-53).

11)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뇌세포에 저장된 정보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시도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스와브(Swaab)와 홉만(Hobman)은 이성애자의 시상하부의 SCN(suprachiasmatic nucleus)이 동성애자의 SCN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나 SCN은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시몬 르베이(Simon Levay)는 INAH3(intersitial nucleus of the anterior hypothalamus 3)가 동성애자들과 이성애자들 사이에 크기의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으나 이 연구는 표본조사의 편향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이 두 연구는 재현에 실패했다 (Jones and Yarhouse 2000, 67-70).

성이 유동적이라는 것과 자웅동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짓주장이고, 자웅동체처럼 보이는 경우도 치료를 요하는 희귀질환임을 전제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성적으로 유동적이고 자웅동체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실재하지 않는 거짓 속성을 가진 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로 간주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 심대한 손상을 가하는 신성모독적인 주장이다.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을 때 성별 상 남자로 태어나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사7:14), 마리아가 요셉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요셉으로부터 어떤 자양분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의 창조적인 기적적인 간섭에 의하여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때와 동일한 남자로서의 생물학적인 조건을 완전하게 갖춘 아들로 탄생하셨다. 이와 동시에 성령의 성화사역으로 인하여 마리아로부터 죄의 오염과 부패가 전달되지 않도록 마리아를 지키시고 육신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의 성화 사역으로 성자의 인성이 죄 없이 그리고 흠 없이 보존되었다 (김석환 2014, 78,291).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구속사건이 완성된 후 곧, 부활한 이후에도 유지된다. 부활하신 몸이 부활 이전과는 질이 다른 변형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이전에 지녔던 외형적인 남성성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들이 역사의 종말 때 보편적인 인류의 부활이 일어난 이후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일부 신학자들은 부활할 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마22:30)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활 상태의 무성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Getz 1976, 47), 이 주장은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결과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첫째로, 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신 일이 없고, 다만 결혼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신 것이며, 둘째로, 부활 이후 사람들이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천사가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렌츠 2003, 49-50). 부활 이후에도 남자와 여자의 성적 구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로, 부활 이후에 변화된 몸을 갖게 된다는 말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sup>12)</sup> 썩지 않고 (고전15:42-43), 죽지 않는 (고전15:52-53) 몸을 입는다는 뜻이다 (김석환 2014, 166-67).

#### 4. 신성모독적인 범신론(2): 하나님을 성적인 불륜행위자와 동일시함

전통적인 범신론이 피조물의 중심을 차지하는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언명에 대한 과도한 해석의 결과다. 창세기1장26,27절에서 사용된 형상(첼렘)은 원상에 대한 모상, 모양(데무트)은 비슷하다는 의미를 지니며, 고린도전서11장7절이 말하는

12) 예수님의 몸이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한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 있는 몸이신 것처럼 (요20:16), 우리의 몸은 물리적 제한 없이 공간이동이 자유로운 몸을 입게 된다. 우리의 시력은 망원경에 의하는 것보다 더 멀리 보며, 운행력은 전기 같이 우주의 이 부분에서 저 부분까지를 신속하게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감각력과 운동력이 민첩하고 널리 미친다 (김석환 2014, 165-66).

형상은 에이콘으로서 구약의 형상(첼렘)의 번역어이고, 야고보서3장9절의 형상은 호모이오시스로서 구약의 모양(데무트)의 번역어다. 이 두 계열의 단어들은 교호적으로 사용된 동의어들로서 원상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상과 비슷한 모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이상원 2015, 13-14; 박형룡 1988a, 95-96; 벌코프 1997, 412-14; 후크마 1999, 23-60). 전통적인 범신론은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원상의 모상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라는 원상 그 자체와 질적으로 동질한 것으로 본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도 전통적인 범신론은 인간과 하나님을 일치시킬 때 거룩성과 도덕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퀴어 신학은 거룩성과 도덕성의 범주를 해체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도덕성에 반하는 존재로 둔갑시킨다. 퀴어 신학은 자신들의 성적인 불륜행위를 그대로 하나님에게 투영하여 하나님도 자신들과 동질적인 성적인 불륜자로 떨어뜨리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도덕적인 명령을 스스로 범하는 모순적인 위선자로 전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에 심대한 손상을 가할 뿐만 아니라 참람한 독신성(瀆神性)을 드러낸다.

퀴어 신학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성교의 대상을 이성으로 한정하는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고 자유롭게 성교를 행하시는 분이다. 퀴어 신학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교의 경험을 하나님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은 남성 간의 성교를 행할 때 위에서 남자의 역할을 하는 톱(top)의 위치에서 바텀의 위치에 있는,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덮치는 성교를 행하는 분으로서 가학피학적 성관계를 즐기시는 색광(色狂)으로 파악한다. 삼위일체의 관계는 삼위가 세 방향으로 다자성애를 행하는 관능적 우정의 관계다. 이처럼 삼위는 난교에 들어간다. 놀랍게도 삼위 각자는 자신만의 비밀의 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지된 욕망”을 숨겨놓고 밀회를 즐긴다. 예컨대 예수는 밀회를 즐기기 위한 이성애인인 막달라 마리아와 동성 애인인 나사로를 숨겨 놓았다. 하나님의 다자적 난교가 창조세계 안에 범신론적으로 쏟아 부어진 바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당사자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몇 명이건, 인간이건 동물이건 관계없이 -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수간 등이 모두 허용된다. 이와 같은 범성적 성애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아시절부터 난교에 들어가는 바, 마리아를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예비 연인, 배우자, 남편이 되어 근친성교도 행한다. 예수는 양성적, 성전환적 인간으로서 사도 요한과 동성 간의 성교를 가지는 동시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성적 성교를 가지며, 만능성애자인 성령과 범성적 성교도 가진다. 예수의 성생활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한다면 자위행위나 근친성교를 해 보면 된다. 마가복음14:51-52의 벌거벗은 젊은이는 예수의 동성 연인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20장1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성애적 사랑을 주고받다가 요한복음20장27절에서는 도마와 동성애적인 사랑을 주고 받는다. 성령은 게이다(gaydar)처럼 LGBT인을 감지해 낸 다음에는 범신적이고 범성애적인 성애에 들어간다. 방언의 은사는 인간의 성욕이 황홀경에 들어갈 때 느끼는 질은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교회는 범신범성적인 성애의 공동체이자 범신범성적 성애로 돌아가는 길이며

타인을 환영하고 관대함을 베푸는 한, 어떤 성교행위 -익명의 대상과의 성교이든, 아니면 공동체적 성교이든 금지되지 않는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을 동성애, 이성애, 다자성애, 근친상간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불륜행위를 자유롭게 행하시는 자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의 입으로 이와 같은 불륜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자신의 도덕법을 스스로 정면으로 범하는 위선자이자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참람하고 신성 모독적이고 사탄적인 진술이다. 하나님은 레위기18장22절과 20장13절에서 동성애를 윤리적인 악한 행위로 간주하여 명확히 금지한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20:13). 하나님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명령을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명령으로 제시하셨다 (Gagnon 2001, 110).<sup>13)</sup>

13) 이 명령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주어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이 명령은 가언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정언명령의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가언명령은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 안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는 서술법이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24장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규범적 명령이 나온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이 명령은 “아내를 새로 맞이하는” 조건적 상황에 한정하여 주는 명령이다. 따라서 이 조건적 상황이 해소되면 이 명령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정언명령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는 서술법으로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명령을 표현한다.

레위기의 금령은 남성 간의 성교가 어떤 동기에 의하여 행해졌는가를 고려하지 않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도 고려하지 않는다. 레위기의 금령은 어떤 동기에 의하여 행해졌든, 어떤 결과를 초래했든, 모든 유형의 “남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교”를 조건 없이 금지하는 명령이다. 레위기의 금령은 이방신전 안에서 이방신에 대한 경배방식의 한 의례로서 행해진 동성 간의 성교든, 아니면 일반인들 사이에서 행해진 동성 간의 성교든, 구별을 두지 않고 모두 금지시키는 명령이다. 성인들 사이에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동성 간의 성교든, 아니면 강제로 행한 추행이든, 소아인 남아아이(미동)을 대상으로 한 성교든, 레위기의 금령은 구별을 두지 않고 모두 금지시킨다. 어떤 사람이 반복적인 후천적 습관에 의하여 중독되어 동성애를 향한 굳어진 어떤 성향이 생겨서 동성 간의 성교를 행했든, 아니면 자기의 의지의 선택에 의하여 동성 간의 성교를 행했든, 레위기의 금령은 구별을 두지 않고 모두 금지시킨다. 또한 동성 간의 성교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이성애를 행할 때보다 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느끼는 결과가 찾아오든, 아니면 더 불행해지든, 레위기의 금령은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금지시킨다. 레위기의 금령은 “이유나 동기나 결과를 따지지 말고, 때와 장소를 따지지 말고,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교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이 명령에다가 어떤 이유나 동기나 결과를 변명으로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는 것이다.

b. 레위기18장22절은 남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교를 금지하고 있는데, 바울은 레위기18장22절의 명령의 보편적이고 도덕법적인 지위를 받아들이면서 이 명령이 남성 간의 성교뿐만 아니라 여성간의 성교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했다. 바울이 로마서1장24절과 26-27절에서 레위기18장22절을 기반으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점에서 확인 된다 (Gagnon 2001, 122). 첫째로, 바울이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교를 “부끄러운 일”(아스케모수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구약 히브리 성경인 맛소라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 레위기18장6-19절, 20장11,17-21절에 24회 사용된 “하체”(에르와, 은밀한 부분, 성기가 있는 부분)를 번역할 때 사용한 용어다. 둘째로, 바울이 로마서1장24절에 동성 간의 성교를 “더러움”(아카타르시아)이라고

동시에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적인 불륜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창조질서 특히 생물학적이고 보건의료적인 건강성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정신이상자로 제시하는 참람한 신성 모독적이고 사탄적인 발상이다. 특별히 남성 간의 성교는 배설기관인 항문과 생식기관인 성기가 무리하게 만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생물학적인 질서를 정면으로 반하며,<sup>14)</sup>

표현했는데, 이 표현도 레위기18장19절과 20장25절을 70인역의 더러움(따메)을 헬리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용어다.

c. 친동성애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학자들은 레위기18장22절과 20장13절이 이방신전 안에서 이방신숭배의식의 일부로서 행해진 종교적 의례로서의 남성 간의 성교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방신숭배의식으로서의 남성 간의 성교를 금지시킨 본문은 따로 있으며(신23:17,18), 이 경우는 행위 주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다르다. 이방신숭배의식의 일부로서의 남성 간의 성교를 다룰 때는 성교의 대상을 남창으로 번역된 “카데쉬”로 표현했다. “카데쉬”는 “거룩하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남창을 가리키는 데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남창이 신전사제임을 뜻한다. 남창들은 거세수술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남자들의 항문성교의 대상이 되었는데, 카데쉬들과의 항문성교는 신의 축복을 받아내는 통로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다 (Gagnon 2001, 102,103).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성교의 대상을 묘사할 때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자카르가 사용되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의 명령이 어린 남자아이 곧 미동을 대상으로 한 성교만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교의 대상을 묘사할 때 “나아르”라는 용어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성교의 대상을 묘사할 때 자카르라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Gagnon 2001, 116). 물론 레위기의 금령에는 이방신전에서 행하는 남성간의 성교와 나이 어린 남자와 행하는 남성간의 성교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d. 레위기20장13절은 남성 간의 동성애를 행한 자에 대하여 사형이라는 중형을 부과했다. 이 형벌은 중기 앗시리아의 법이 규정한 형벌인 거세보다 월등히 무거운 것이다 (Gagnon 2001, 103). 레위기에서 남성 동성 간의 성교는 금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범죄(supreme offense)로 간주되었다. 남성 동성 간의 성교는 자식을 몰락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레20:2, 제1,2,6계명을 범하는 행위),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레20:7, 제5계명을 범하는 행위), 근친상간(레20:11,12,14, 제7계명을 범하는 행위), 수간(레20:15,16, 제7계명을 범하는 행위) 등과 함께 사형이라는 중형을 받았다.

e. 모세의 율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 된다 (이상원 2013, 95-100; Calvin 1989, IV.20.14vv, 15vv;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9.3.4). 의식법은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등과 같은 종교적 의례를 다룬 법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상징체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더 이상 자구적으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구약시대에 의식법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며칠간 격리시키는 조치 정도 이상의 처벌은 하지 않았다.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신정적 정치경제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정법체계로서, 정치문화와 시대와 지정학적 조건이 달라진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황에서는 자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법체계로서,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 성윤리 관련 명령 등이 포함된다. 도덕법의 특징은 이 법을 범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이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제1,2계명을 범하면 사형 당했고, 안식일을 범하여 제4계명을 어긴 경우에도 사형 당했고, 부모를 저주함으로써 제5계명을 범한 경우에도 사형 당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 제6계명을 어긴 경우에도 사형 당했고, 간음을 범한 경우에도 사형을 당했다. 레위기20장13절이 남성 간의 성교를 행한 자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성 간의 성교를 금지한 명령이 십계명과 같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법이라는 뜻이다.

14) 여성의 성기는 모양을 쉽게 바꾸거나 확대 가능한 두꺼운 근육조직에 의해 둘러싸여 손상되지 않고 마찰에 잘 견딘다. 내부점막과 주위의 근육이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이가 출산하는 통로로 이용될 정도로 팽창력이 있다. 반면에 항문은 작은 근육들로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꼬리뼈에 붙어있어 여성 성기에 비해 제한적으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항문 성관계를 할 때 항문과 직장에 상처가 생기기 쉽다. 직장의 외벽은 한

이 같은 행위는 심각한 보건의료적인 질병들의 발원지가 된다는 점에서 동성애는 의학적인 질서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a. 오랜 기간 지속적인 항문성교로 항문확장이 이루어져서 대변실금이 나타난다 (김지연 2020a, 235-36; 민성길 2020a, 193). b. 게이 장 증후군, 이질, 간염, 항문 암 등과 같은 대변구강 감염질환이 나타난다 (민성길, 2020a, 192-93; 김지연 2020a, 236-38). c. 2012년 미국의 남성 동성애자가 전 국민의 2%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매독환자 중 75%가 남성 동성애자에게서 나타나는 등 성병에 감염되었다 (김지연 2020, 247-48). c. 에이즈에 감염된다.<sup>15)</sup> d. 수명을 단축시킨다 (김지연 2020, 233-34).

### 5. 신성모독적인 범신론(2): 중요한 교리적 사건들을 커밍 아웃으로 해석함

퀴어 신학은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적 사건들을 모두 동성애자임을 숨기지 않고 대중 앞에 드러내어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행하는 사건인 커밍 아웃과 동일시한다. 예컨대, 하나님이 숨겨 온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는 LGBT가 외부로 자기 사랑을 커밍 아웃하는 것에 유비된다. LGBT들이 숨어 있는 밀실을 허물고 자유롭게 커밍 아웃 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퀴어 신학에 있어서는 커밍 아웃은 바로 성례다. 퀴어 신학은 세례받을 때 젠더와 생물학적인 성의 구분이 사라지고 새로운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례를 커밍 아웃과 동일시한다. 여기서도 퀴어 신학의 신성모독적인 독신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바, 은밀하게 행해 왔던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동성애로부터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를 공개적으로 행하기를 대담하게 밝히는 침람한 행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계시와 성령의 거룩한 활동과 세례의 거듭남을 범신론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며 고의적으로 항거한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계시는 동성애가 포함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

층의 얇은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찢어지기 쉽다. 또한 항문의 괄약근은 몸 밖으로 내보내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역방향으로 갑작스럽게 물체를 삽입하면 자연적으로 수축한다. 또한 여성의 성기와 달리 항문과 직장은 마찰을 방지하거나 점액을 배출하는 기능이 매우 부족하다. 결국 점액이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 성기가 삽입되거나 혹은 충분히 팽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될 경우, 항문 주위나 항문관 조직은 찢어져 파열될 수 있고, 항문의 출혈 또는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정액은 면역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일으킨다. 여성의 면역방어 시스템이 약화되어야만 정자들이 그 방어벽들을 피하여 수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문 성관계는 항문이나 직장의 취약성과 면역을 약화시키는 정액의 효과 때문에 질병 전염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염안섭 2020, 185-86).

15) 에이즈(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기원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명은 원숭이와 인간의 수간에 의하여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김지연 2020, 238; 김지연 2019, 351; Movie 2012; Kos 2012). 한국의 경우 2014년 에이즈 감염신고자 1081명 중 남성이 1016명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지연 2020, 238), 2011년 미국 전체인구의 1-2%밖에 차지하지 않은 남성 동성애자가 미국 전체 에이즈 감염자 중 69.5%,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중 94%가 동성애 행위를 한 자들이다 (김지연 2020, 241; Labarbera 2013, 241).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며,<sup>16)</sup>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동성애가 포함된 세상의 타락한 관습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는 행동이다.<sup>17)</sup>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동성애가 포함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어 있던 사람을 속사람의 차원에서 거듭나게 하는 중생사건 (박형룡 2003, 152-92; 벌코프 1997a, 714-28)이며, 거듭난 사람을 겉 사람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신자를 점진적으로 해방시키는 성화의 사역이다 (박형룡 2003, 330-384; 벌코프 1997a, 779-808). 세례는 성령세례와 물세례로 구성되는 데, 성령세례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중생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며, 물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났음을 인증하는 외적인 표호이다 (박형룡 2006, 279-87; 벌코프 1997a, 890-94).

## 나가는 말

어떤 신학과 교파가 이단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교리들 특히,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방식에 관한 심각한 왜곡이 있어야 한다. 퀴어 신학은 현대인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사조에 맞추어 정통 기독교의 핵심교리들을 자의적으로 변경 또는 폐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론을 채용한다. 이 방법론에 따라 퀴어 신학은 성의 유동성을 주장하는 젠더이데올로기와 이성애적 규범을 철폐한 성해방이념의 관점에서 정통 기독교의 핵심교리들을 외설적이고 독신적(瀆神的)으로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퀴어 신학은 LGBT들의 젠더적이고 친동성애적인 경험에 비추서 범신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을 재해석한다.

퀴어 신학은 하나님을 남성과 여성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성전환적인 자동동체로 묘사하며, 성전환자로서 파트너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성애를 품고 성관계를 행하는 외설적인 불륜행위자로 묘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상호간에 집단 난교를 즐기고, 인간들과 비밀의 애인을 숨겨 놓고 밀회를 즐기며, 인간들과도 이성과 동성을 가리지 않고, 또한 유부녀인가 유부남인가도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근친상간을 즐기는 색광으로 묘사한다. 퀴어 신학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에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이단으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침람한 신성모독까지도 자행하는 사탄의 신학이다. 퀴어 신학은 다양한 신학체계들 가운데 하나로서 대화와 신학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버려야 할 신학적 쓰레기와도 같은 신학이다.

16) 구약의 출애굽사건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

17)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내 규례를 그대로 지켜 그대로 행하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18:3-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12:2).

## 참고문헌

### \* 약어

QT = Gerard Loughlin, ed.

2007. *Queer Theology: Rethinking the Western Body*. Malden, MA: Blackwell.

T/f = Althaus-Reid and Isherwood.

2001. *Trans/formations*. London: SCM Press,.

QCHB = Ken Stone.

2001. *Queer Commentary and the Hebrew Bible*. Cleveland, OH: Pilgrim.

<생성I>. 권요한 외.

2020. <생명과 성I>. 서울: 밝은 생각.

<생성II>. 김윤태 외.

2020. <생명과 성II>. 서울: 밝은 생각.

-----  
Alison, James.

2006. *Undergoing God: Dispatches from the Scene of a Break-In*. New York: Continuum.

Althaus-Reid, Marcella.

2003. *The Queer God*. London: Routledge.

Bailey, J. Michael and Richard C. Pillard.

1991. "A Genetic Study of Male Sexual Orient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1991): 1081-96.

Bailey, J. Michael Richard C. Pillard, Michael C. Neale and Yvonne Agyei.

1993. "Heritable Factors Influence Sexual Orientation in Woma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217-23.

Boer, Roland.

2001. "YWHW as Top: A Lost Targum." In *QCHB*: 75-105.

Beattie, Tina.

2007. "Queen of Heaven." In *QT*: 293-304.

Bohache, Thomas.

2006. "Pentecost Queered." In Deryn Guest and Robert E. Goss, Mona West and Thomas Bohache. ed. *The Queer Bible Commentary*. London: SCM Press.

Boisvert, Donald.

2004. *Sanctity and Male Desire: A Gay Reading of Saints*. Cleveland, OH: Pilgrim Press.

Brant, Wil Rombotis.

2001. "Why Go to Church When You Can Drink with Mary?: Gaymale Clubculture as Religion Without Religion Against Ethics." *Theology and Sexuality*, no. 15 (September): 32-44.

Brown, Harold O.J., 라은성 역.

2002. <교회사 안에 나타난 이단과 정통>. 서울: 그리심.
- Calvin, John.  
1989. *Institutu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Eerdmans, 1989.
- Cheng, Patrick S.  
2006. "Reclaiming Out Traditions, Rituals, and Spaces: Spirituality and the Queer Asian Pacific American Experience." *Spiritus* 6 no.2 (Fall): 234-40.  
2011. *Radical Love: An Introduction to Queer Theology*. New York: Seabury Books.
- Cherry Kittredge.  
2006. *Jesus in Love*. Berkeley, CA: AndroGyne Press.
- Coakley, Sarah.  
2009. "Living into the Mystery of the Holy Trinity: Trinity, Prayer, and Sexuality." In *The Holy Spirit: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ed. Eugene F. Rogers. Malden, MA: Wiley-Blackwell: 44-52.
- Cornwell, Susannah.  
2001. "Apophasis and Ambiguity: The 'Unknowingness' of Transgender." In *T/f* : 13-40.
- Dykstra, Laurel.  
2000. "Jesus, Bread, Wine and Roses: A Bisexual Feminist at the Catholic Worker." In Debra R. Kolodny, *Blessed Bi Spirit: Bisexual People of Faith*. New York: Continuum: 78-88.
- D'Costa, Gavin.  
2007. "Queer Trinity." In *QT*, 269-80.
- Douma, J.  
1992. *De tien geboden*. Kampen: Van den berg.
- Ellis, Lee and Ashley Ames.  
1987. "Neurohormonal Functioning and Sexual Orientation: A Theory of Homosexuality-Heterosexu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33-38.
- Eribon, Didier.  
2004. *Insult and the Making of the Gay Self*. Trans. by Michael Luce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Frame, John.  
2008.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Phillipsburg: R & R, 2008.
- Freud, ; Sigmund.  
1964. "The ego and the id." I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XIX. London: Hogarth Press:  
1964a. "The Unconsciousness" I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XIV. London: Hogarth Press:

- Gagnon, Robert A.J.  
2001.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Texts and Hermeneutics*. Nashville: Abingdon Press.
- Gana, A. et al.  
2019. "Large-Scale GWAS reveals insights into the genetic architecture of same-sex sexual behavior." *Science*, (Aug) 365(6456), eaat76930.
- Glaser, Chris.  
1998. *Coming Out as Sacramen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Getz, Gene A.  
1976. *The Measure of Family*. Glendale, Calif.: Gospel Light/Regal Books.
- Gorrell, Paul J.  
2005. "Rite to Party: Circuit Parties and Religious Experience." In Thumma and Gray. *Gay Religion*.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 Goss, Robert E.  
2002. *Queering Christ: Beyond Jesus Acted Up*. Cleveland, OH: Pilgrim Press.
- Hamer, Dean H., Stella Hu, Victoria L. Magnuson, Nan Hu and A.M.L. Pattatucci. 1993.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 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320-26.
- Heyward, Carter. *Touching Our Strength: The Erotic as Power and the Love of 1989*. God.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 Hinnant, Olive Elaine.  
2007. *God Comes Out: A Queer Homiletic*. Cleveland, OH: Pilgrim Press.
- Hipsher, B.K.  
2001. "God Is a Many Gendered Thing: An ApoPhatic Journey to Pastoral Diversity." In *T/f* : 92-104.
- Hollywood, Amy.  
2007. "Queering the Beguines: Mechthild of Magdeburg, Hadewijch of Anvers. In *QT*: 163-75.
- Jennings, Theodore.  
2001. "YWHW as Erastes." In *QCHB*: 36-74.
- Jones, Stanton L. and Mark A. Yarhouse.  
1997. "Science and the Ecclesiastical Homosexuality Debates." *Christian Scholar's Review* 26, no.4: 446-77.  
2000. *Homosexuality: The Use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Church's Moral Debate*. Downers Grove, Il: IVP.
- Jordan, Mark D.  
2007. "God's Body." In *QT*: 281-92.
- Kallman, F.J.

1952. "Comparative Twin Study on the Genetic Aspects of Male Homosexualit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15: 137-59.
- Kelly, Michael Bernard.  
2007. *Seduced by Grace: Contemporary Spirituality, Gay Experience, and Christian Faith*. Melbourne, Australia: Clouds of Magellan.
- King, Michael and Elizabeth McDonald.  
1992. "Homosexuals Who Are Twins: A Study of 46 Proband."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0: 407-9.
- Kos, Daily.  
2012. "TN State Senator says "AIDS caused by gay pilot having sex with monkey." <http://www.dailykos.com/story/2012.01/29/1059603>.
- Lakeland, Paul.  
2010. "Ecclesiology, Desire, and the Erotic." In Margaret Kamituska. *The Embrace of Eros: Bodies, Desires, and Sexuality in Christianity*. Minneapolis, MN: Fortress.
- Larabera, Peter.  
2013. "CDC funds "gay activist groups like GLSN that promote acceptance of behavior tied closely to HIV," Americans for truth about Homosexuality." <http://americafortruth.com/2013.09/11>.
- Loughlin, Gerard.  
2007. "Introduction: The End of Sex." In *QT*: 1-34.
- McIntyre, Alasdair.  
1984.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ollenkott, Virginia Ramsey.  
2001. *Omnigender: A Trans-Religious Approach*. Cleveland, OH: Pilgrim Press.
- Movie, Mondo.  
2012. Documentario Etnografico 1975, <http://www.youtube.com/watch?v=OoThvKoCXbQ>.
- Patridge, Cameron.  
2012. "Side Wound, Virgin Birth, Transfiguration." In *Theology and Sexuality*, 18: 127-32. Plato.  
1989. *The Symposium*, in *The Republic and Other Works*. Trans. by B. Jowett. New York: Doubleday, 1989.
- Rice, George, Carol Anderson, Neil Risch and George Ebers.  
1999.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284 (April): 665-67.
- Rogers, Eugene F.  
1999. *Sexuality and the Christian Body: Their Way into the Triune God*. Oxford, UK: Blackwell.
- Rudy, Kathy.  
1997. *Sex and the Church: Gender Homosexual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Christian Faith*. Boston: Beacon Press.  
2007. "Subjectivity and Belief." in *QT*: 37-49.

- Schaeffer, Francis.  
1987. *The God Who Is There*. In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Scherffer: A Christian Worldview*, Vol. 1. Westchester: Crossway. 1987: 1-202.
- Stuart, Elizabeth.  
1995. *Just Good Friends: Towards a Lesbian and Gay Theology of Relationships*. London: Mowbray.  
2001. "The Priest at the Altar." *T/f*: 127-38.  
2003. *Gay and Lesbian Theologies: Repetitions with Critical Difference*. Aldershot, UK: Ashgate.  
2007. "Sacramental Flesh," in *QT*: 65-75.
- Tanis, Justin.  
2003. *Tran-Gendered: Theology, Ministry, and Communities of Faith*. Cleveland, OH: Pilgrim Press.
- Tonstad,  
2018. *Queer Theology*. Oregon: Cascade Books.
- Von meyenfeldt.  
1978. *Tien tegen een*. Hilversum: De Boer.
- Ward, Graham.  
1999. "The Displaced Body of Jesus Christ." In John Milbank, Catherine Pickstock, and Graham Ward, eds. *Radical Orthodoxy: A New Theology*. London: Routledge: 163-81.  
2007. "There is no difference." In *QT*: 76-85.
-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 Williams, Robert.  
1992. *Just as I Am: A Practical Guide to Being Out, Proud, and Christian*. New York: HarperPerennial.
- Williams, Rowan.  
2000. *On Christian Theology*. Oxford: Blackwell.
- Wilson, Nancy.  
1995. *Out Tribe: Queer Folks, God, Jesus, and the Bible*. San Francisco: Harper SanFrancisco.
- 그렌츠, 스탠리, 남정우 역.  
2003. <성윤리학>. 서울: 살림.
- 길원평 외.  
2016.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서울: 라온누리.
- 김석환.  
2014.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 서울: 킹덤박스.
- 김지연.  
2019. <덮으려는 자/펼치려는 자>. 서울: 사람.  
2020. "남성 성관계의 문제점: 보건적 고찰." <생성I>: 228-53.
- 류현모.  
2021. "성분화의 과학." 차바아, [시즌2], 제42회.  
<https://m.youtube.com/watch?v=VF8Yc5Kzsp8&t=405s>

- 목창균.  
1995. <현대신학논쟁>. 서울: 두란노.
- 민성길.  
2020. “젠더와 정신의학.” <생성II>: 84-117.  
2020a. “동성애와 의학.” <생성I>: 172-227.
- 바노이, 러셀, 황경식·김지혁 역.  
2003. <사랑이 없는 성>. 서울: 철학과 현실사.
- 박형룡.  
1988. <현대신학선평 상>.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a. <교의신학 인죄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2003. <교의신학 구원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 벌코프, 루이스, 권수경 · 이상원 역.  
1997. <조직신학 상>.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a. <조직신학 하>.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엄남석.  
2018.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고 4개 관련 유전자 변이만 발견.”  
<https://blog.naver.com/esedae/221383052302>.
- 염안섭.  
2020. “동성애와 에이즈.” <생성II>: 174-89.
- 이상원.  
2007. <프란시스 웨퍼의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 서울: 살림.  
2007a. “프로이드의 자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경과 개혁신학: 서철원 박사 은퇴 기념 논총>. 서울: 쿤란출판사: 313-39.  
2014. “성이란 무엇인가? - 성경적, 신학적 윤리적 생리학적 관점에서 -.”  
<교회의 성: 잠금해제?>. 서울: 한국교회탐구센터 IVP: 10-53.  
2013. <기독교윤리학: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론과 실제>.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15. “개혁주의 인간론은 인간의 성품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인의 성품.”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진흥원: 10-41.  
2020. “퀴어신학의 이단성.”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퀴어 신학 비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16-83.
- 이세일.  
2021.12.3. “간성과 동성애는 서로 무관하다.” 차바아, [시즌2], 제50회.  
<https://m.youtube.com/watch?v=1PEFv0iiXpE>
- 쿠비, 가브리엘, 정소영 역.  
2018. <글로벌 성혁명>. 서울: 밝은 생각.
- 후크마, 안토니 A.  
1999.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Abstract

Sangwon Lee(Former professor of Chongshin University  
in Christian Ethics and Systematic Theology)

### The Heretic features of Queer Theology

When we want to criticize some theology or denomination as heresy, we should be able to find that they distorted seriously the central doctrines of Christianity determining the identity of Christianity, for example, the doctrines about the nature and way of being of God. Queer Theology adopts the theological methodology of liberal theology which changes or abolishes the central doctrines of orthodox Christianity arbitrarily in accordance with new contemporary ideologies. Using this new methodology, queer theology reconstructs the central doctrines of orthodox Christianity obscenely and blasphemously in the perspective of gender and sexual revolution ideologies. The result is that queer theology reinterprets the nature and work of the Trinitarian God in the perspective of the gender and pro-same-sex experience of LGBTQ.

Queer theology delineates God as a sort of transsexual hermaphrodite who can change his sexual identity freely. This God has freely sexual desire for any partners regardless of who they are and has obscene and adulterous sexual intercourse with them arbitrarily. The Trinitarian God enjoys group orgy among the three Persons and secret love meetings with hidden human lovers. The Trinitarian God is delineated as a sex maniac who enjoys same-sex intercourse, bisexual intercourse, polysexual intercourse, or incest with any partne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same sex ones or other sex ones, and whether they are married women or married men. This shows clearly that queer theology gives a serious damage to the nature and work of God. This means that queer theology must be defined as a heresy. Furthermore queer theology can be judged as a Satanic theology carrying out wicked blasphemy. Queer theology is not the object of normal theological dialogue and discussion as one of various theological systems but must be discarded, for it is just a sort of theological garbage.

**Keywords:** queer theology, gender ideology, heresy, the Trinitarian God, orgy